

# 9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9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

9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은 가을의 깊어가는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지 다짐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 9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 - 감사와 찬양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리라” (시편 105:1)

---

9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봄의 생명력, 여름의 풍성함을 지나 이제 가을의 결실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우리가 내뿜 숨결마다 주님의 생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 9월 넷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는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곧 다가올 10월과 한 해의 마지막 분기를 앞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욱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는 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와 각종 시험이 물려있는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적과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성실함을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키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에게는 연말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9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2 - 회개와 새로운 시작의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우리가 범한 허물과 죄악들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중심까지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9월 한 달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사랑보다는 짜증을, 이해보다는 성급한 판단을, 격려보다는 비판의 말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섬김보다는 받으려 하고, 화합보다는 분열을, 기도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직보다는 편법을, 성실함보다는 대충함을, 배려보다는 이기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10월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와 찬양, 격려와 위로의 말만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는 선한 일들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 9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3 -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7)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들입니다. 이 연합의 끈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옵소서.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각종 시험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해결책을 주옵소서.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9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4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개인의 유익이나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보다는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사회에 주옵소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온 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분단의 아픔이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평화통일을 향한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사들도 보람을 느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옵소서.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설이 잘 갖춰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하나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 9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5 - 세계와 선교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온 세계와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잊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만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구합니다. 중동 지역의 계속되는 갈등과 대립도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 국가들 사이에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히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모님의 선교사역 때문에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자라나는 선교사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육과 진로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이슬람 국가들과 힌두교, 불교 등 타종교가 지배적인 국가들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종교적 편견과 박해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옵소서. 국제구호기관들과 선교단체들을 통해 필요한 도움이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의 양식인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세계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와 헌금, 그리고 직접적인 선교 참여를 통해 지상명령 완수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넷째주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은 [금난교회 게시판] ([https://www.kumnan.org/board\\_mPeU84](https://www.kumnan.org/board_mPeU8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